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hr/>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2017년 10월 20일(금) (음력 9월 1일) Пятница 20 октября 2017 г. № 41(11675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사할린한인 주제로 사할린 여행 중인 서울 로드스폴라 학생단이 10월 17일(화) 새고려신문사를 방문했다. (관련 기사 3면) (이예식기자 촬영)

## 단신

### 2018년 사할린에서 러시아 기능올림픽대회(월드스킬스) 개최

2018년에 전국 직업기능올림픽 챔피언대회를 사할린에서 개최한다고 러시아 정부 올가 골로제츠 부총리가 사회노동관계 조정위원회 3각 회의에서 밝혔다.

2018년에 직업기능올림픽대회를 카잔에서 개최하기로 한 계획이 수정되어 2019년에 국제기능올림픽 챔피언십대회를 카잔에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재 카잔시는 적극 준비 중에 있다고 부총리는 설명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또는 월드스킬스(WorldSkills)는 직업기능을 겨루는 국제대회이며 참가연령은 17세부터 22세까지다.

###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일본 아사히카와시와 우호협력 관계 발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일본 아사히카와시와 자매결연 50주년을 기념했다. 지난 주말 니시카와 마사히토 아사히카와 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아사히카와시 대표단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방문하여 3일간 자유형 레슬링 대회, 제5회 일본제품 박람회 개최 및 사할린국립대, 주향토박물관, 제3김나지아 등을 방문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 지도부와 아사히카와시 대표단과의 회의에서는 앞으로 양 도시 간 교육·문화·스포츠, 장애인 단체와 상호 협력에 따른 행사 진행 등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었다.

### 사할린주, 러중 중소기업포럼에서 관광스텐드 소개

중국 광저우에서 러중 친선평화개발위원회 주최와 러시아경제개발부 지원으로 제3회 러중 중소기업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은 <중소기업을 위한 위대한 기회>란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다. 사할린대표단은 러중 지역들의 투자기회 논의와 공동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관광분야를 언급했다. 사할린주는 포럼의 일환으로 펼쳐진 중소기업 전시회에도 참가해 관광서비스 분야 부스를 마련하여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시에는 러시아 지역의 모스크바, 브란스크, 첼랴빈스크, 톰스크 등과 일본, 한국, 그리스, 태국, 멕시코 등 국가들이 참가했다.

### 이예식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에서 사진전 열려

10월 27일(금) 오후 5시 30분 사할린주한인회 주최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기자의 <사할린한인: 귀환>이란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이예식 기자는 수십 년간 신문사에서 재직하며 촬영해온 사진들 중 엄선하여 2016년에 편찬한 <귀환>사진집을 행사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사할린한인 1세대들의 생활상과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한다.

## 2017년 연송어 어획량 2015년에 비해 절반 조금 넘는 수준

지난 18일(수) 오후 기자회견에서 연송어기 예비 결과를 밝혔다. 예브게니 카피노노브 주수산청 부청장은 올해 주내 업체들의 올해 연송어 어획량은 4만9000톤(송어 2만8600톤, 연어 2만700톤)으로 2015년의 송어기 어획량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2015년에 연송어 어획량은 8만7600톤(송어 4만7300톤, 연어 4만300톤)으로 올해보다 4만 톤이 더 많은 양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올해 연송어 감소 요인들을 분석, 발표했다. 어획 불황의 요인으로는 산란기에 태풍과 물의 범람 등, 자연적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감소 수치는 캄차트카, 마가단, 하바롭스크 변경,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자연적 원인과 함께 조업규제, 수산업체의 활동과 불법포획도 연송어 감소 요인이 되었다.

## 사할린주, <2017 건축술> 국제축제에서 은상 받아

<러시아의 지역: 도시 환경>의 일환으로 우수 도시건설과 건축의 표본과 실체를 평가하는 검열경연에서 사할린 지역이 우수 건축계획과 실행으로 선정되었다. 검열 대상은 사회적 제반 시설구축, 주택, 상업지구, 사회적 공간이다. 이들 중 유즈노사할린스크 포베다 광장의 건축 양상블, 체호브극장, 제3김나지아, <아드미랄>주택단지, 설계 중인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복합단지, 네웰스크 스포츠단지와 학교, 쿠릴스크와 유즈노쿠릴스크의 소공원들, 홀스크 해양 박물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의 정비계획 등이다. 25회 <건축술>국제축제는 러시아연방의 15개 지역이 참가한 가운데 모스크바 <고스핀너 드워르> 종합 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사할린주는 처음으로 전시에 나섰다. 사할린주의 건축자들과 제출한 계획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견실한 발전적 정치조성을 향한 현대적인 추진력으로 사할린주는 축제 우수상 중 하나인 <도시의 환경: 지역 및 지방자치체 도시발전프로그램>부문에서 <은빛 마크>상을 수상했다.

"우리가 받은 상은 사할린지역이 건축과 도시건설에서 편리함과 현대적이고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향하며 발전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사할린주 도시건설·건축청 세몬 발킨 청장이 평가했다.

## 사할린주정부, 3가지 투자기획 지원 예정

사할린주정부 드미트리 네스체로브 부수상은 투자활동협의회 전문그룹의 회의를 주재했다. 이 그룹의 임무는 사할린과 쿠릴에서 실시할 사업기획, 대대적 사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분야와 국가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을 연구하고 이에 정부집행기관의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3가지 프로젝트가 소개 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정해진 요구 조건에 맞다며 국가지원을 요청했다.

<알라이드>컴파니는 세웨로쿠릴스크에 활동 중인 수산업체의 어류 가공 공장의 현대화, <쿠릴스키 리바크(쿠릴 어부)>업체에서는 쉬코탄 섬에서 중형 선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칠주형 부두 건설, 알루미늄 창문, 문, 파사드 시스템을 설치하는 <카르위>회사는 기존 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획들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주정부 부서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font-weight: bold;">새고려신문</div>	<h2 style="margin: 0;">2018년 신문주문 시작!</h2>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p>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3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공훈화가로서 사할린에서도 이름난 고려인 조각가 니(이) 아나톨리 니콜라에위츠에 대한 앨범 전시회가 있었다.

니 아나톨리 니콜라에위츠의 이름은 섬지역 문화와 역사와 연관돼 있다. 아나톨리 조각가의 삶과 창작을 반영한 이 앨범은 사할린주문화고문서부 소속 사회주의문학출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출판되었다.

앨범은 3부로 나뉘져 1부에서는 조각가의 삶에 대한 것으로 가족 사진첩에 보관된 조각가의 사진들을 볼 수 있다. 2부는 아나톨리 조각가의 조각작품, 3부는 그의 그림에 대한 것이다.

사할린주미술박물관이 준비한 <아나톨리 니: 조각, 회화>의 표지에는 조각가가 제작한 조부의 조각상 사진이 올랐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조부의 조각상은 현재 트레차야코브 국립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

이 앨범은 사할린주 설립 70주년 우수 지역 출판물 콩쿠르의 <인물로 소개된 사할린>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출판물은 사할린주의 모든 도서관(165개)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앨범은 국내 체호프 박물관 및 도서관들에게도 보낼 예정이다.

나탈리아 키류히나 러시아 화가연맹 회원은 "각 예술가들에게도 이런 중요한 기념행사가 생존에 필수적이었다면 좋겠다. 우리에게 있어 이 유산은 훌륭한 예술가, 위대한 노력을 기억하게 한다. 이전 시대 대표적 예술가들과 같이 우리

# 일반인부터 소련의 영웅들까지 조각작품으로 니 아나톨리 조각가의 앨범 소개



에게는 아나톨리 니, 기위 만트카와 같은 대표적 예술가가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술에 정진해온 분들이며 비록 보수를 받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작업실은 그들의 일터였다. 그들은 우리가 참 존경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조각가이자 예술가였다. 올해는 아나톨리 니콜라에위츠가 사할린에 오신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에게 빛나는 추억을 바치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이 출판물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키류히나 화백은 언급했다.

연해주에서 태어난 니 아나톨리는 1937년에 가족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를 당했다. 그리고 코미공화국의 노동전선에서 일을 했다. 그는 특별한 예술수업을 받지 않았다. 다만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와 조각을 좋아했다.

1952년, 가족과 함께 사할린으로 이주한 그는 처음엔 학교 교사로, 다음엔 콤포몰(청년 공산주의자 동맹) 활동을 하다가 2년 후에는 온전히 미술창작에 전념했다.

그의 주요 작품의 장르는 조각상이었다. 청동, 콘크리트, 석고, 화강암, 나무와 같이 다양한 제작 재료로 인물들의 성격, 개인적 독특성을 잘 묘사해 낼 줄 알았다. 50여 년간 니 조각가는 소련과 사할린 역사에서 이름을 남긴 참전 용사, 노동의 영웅들을 조각상으로 만들었다. 그들 중 알렉세이 그네츠코, 니콜라이 율코브, 레오니드 스타르니흐, 막심 푸르카예프, 포이탄 차이카, 표도르 안쿠지노브, 안톤 부유클리 등이 있다. 또한 역사 인물 (네벨스코이)과 문학가(체호프) 등도 조각하고 그리기도 했다. 또한 니 아나톨리가 제작한 일반인들의 조각상과 그림도 많다. 베트남 처녀, 조선인 여대생, 물리지리학자, 건설 현장의 책임자(삽장), 순록 목장 등이 있다.

니 아나톨리 조각가는 작년(2016년) 90세 생일을 5일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딸 울리야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오늘 소개된 앨범을 냈으면 얼마나 좋았을 까?! 그리고 러시아 예술가에게서 가장 중요한 상인 레핀 황금메달을 받게 된 걸 알려드리지 못해서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상을 90세 생신일에 전달해 드리려고 했었다."고 니 아나톨리의 딸인 울리야나 아나톨리예브나는 덧붙였다.

전시회에 참석한 한 관객은 "그는 독특하고도 훌륭한 조각가입니다. 조각으로 어떻게 민족을 묘사할 수 있었는지? 그가 제작한 조각작품에서는 한인이든, 넵흐인 이든, 러시아인의 본연의 특성이 묘사되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각가는 선량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의 얼굴을 선택했나 봐요. 이 앨범에서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현재 니 화백의 작품들은 트레차코브 갤러리, 치타미술관, 극동미술박물관(하바롭스크), 콤포몰스크-나-아무레미술관, 무르만스크향토박물관, 사할린 주향토박물관과 주미술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사람에 대한 기억이 이와 같은 앨범 선집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 출판물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만 아니라, 주내 주민, 국내 지역 미술애호가들이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좋은 앨범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주신 예술가들과 기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앨범이 아버지의 감사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니 울리야나 아나톨리예브나가 덧붙였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이모저모

### 노글리키도서관, 스탈린의 탄압 속에 사할린의 시기에 대한 전시회 개막

러시아연방정부는 10월 30일을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일로 기린다. 이날 행사의 일환으로 산기명칭 노글리키 도서관에서는 "역사의 흔적을 따라: 스탈린 시대의 탄압"이란 사진전시회가 열렸다.

노글리키 구역을 포함해 북사할린에 몇몇 강제 수용소 안에는 상당수의 정치범들이 존재했었다. 전시회에는 2016년과 2017년에 탐방한 너시 마을 부근의 제305수용소에 대한 사진자료가 소개되었다. 도서관 직원들은 방문자들에게 자신들의 연구조사 결과와 역사자료를 상세히 소개하고 향후 이 주제에 관한 계획도 알릴 계획이다. 도서관 측은 11월3일까지 열리는 사진전시회에 구역 주민들과 지역 방문객들을 초대한다고 구역행정부는 전했다.

### В ноглик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открыта фото-выставка о репрессиях сталинских времен

30 октябр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памяти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рамках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йонной центр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ени Санги в Ногликах открыта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 следам истории: репрессии сталинских времён".

Общеизвестно, что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в том числе и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было несколько тюремных лагерей, в которых содержалось немал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их заключённых.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фотоматериалы экспедиций 2016 и 2017 годов на место бывшего лагерного пункта №305, располагавшегося около села Ныш. Сотрудники библиотеки подробно знакомят посетителей с результатами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 историческими материалами, рассказывают о своих дальнейших планах на эту тему. Библиотека приглашает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района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у, которая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3 ноября этого года, сообщает район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 제 8 회 <21 세기의 아이들>축제, 주내 15 구역의 참가자들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모여

10월 28-29일 제8회 <21세기의 아이들>유소년 합창 축제가 사할린주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된다.

축제에는 주내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간 예선을 통과한 연령별 3그룹(6-8세, 9-12세, 13-15세)으로

나된 출연자들이 참가한다. 이들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돌린스크, 아니와, 코르사코브, 쿠릴스크, 네벨스크, 노글리키, 오하,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흐, 토마리, 우글레골스크, 홈스크, 유즈노쿠릴스크 구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대표하는 합창단, 앙상블과 솔리스트들이다.

참가자들은 4가지 부문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전형적인 합창, 에스트라다-재즈 합창, 민요 부문, <나의 별-사할린>-자작동요 (장르는 자유), 사할린 및 쿠릴에 대한 다른 작곡가-작사가들의 노래(사할린주 설립 기념 일환으로).

방학 기간에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기획은 사할린주문화고문서보관부 주최하고, 주 민족창작센터가 주관한다.

합창축제 프로그램에는:

10월 28일 - 축제공연콩쿠르 (<로지나>문화회관, 14시)

10월 29일-표. 시상식, 갈라 공연 (<로지나>문화회관, 13시)

어린 음악가들을 응원하도록 모든 희망자들을 초대한다. 초대장은 <로지나>문화회관에서 당일 받을 수 있다고 주민속창작센터에서 전한다.

### VIII фестиваль "Дети XXI века" собер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частников из 15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28-29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VIII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 юных вокалистов "Дети XXI века", посвященный 7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исполнители тр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6-8, 9-12, 13-15 лет), прошедшие отборочные прослушивания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в течение года. Это хоры, ансамбли и солисты из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Куриль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Охин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оцениваться в четырех номинациях:

- академический вокал;
  - эстрадно-джазовый вокал;
  - народное (фольклор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Моя планета Сахалин" — авторские песни детей (любых направлений), песни других авторов, посвященные Сахалину, Курилам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юбилея области).

Учредителем этого широко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а, который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ходит в дни школьных каникул, явля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 28 октября — конкурсный концерт фестиваля в ГДК "Родина", начало в 14:00;

29 октября —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и гала-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побед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в ГДК "Родина", начало в 13:00.

Поддержать юных артистов приглашаю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иглашительные билеты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кассе ДК "Родина",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 사할린주민들을 초보여행자 준비과정 수업에 초대

<아드레날린>사할린사회단체는 초보여행자 준비 과정에 희망자들을 초대한다.

초보 배낭여행자들은 수업에서 스포츠 행군 진행과, 조직과 준비 방법에 대해 알게 되고 행보의 안전에 대한 세미나를 청강하게 된다. 이론과정 외에 실습과정에서는 수강생들에게 모닥불을 피우는 법, 모닥불에서 조리를 하는 법, 겨울에 밤을 보내기 위해 눈 굴을 파는 법 등을 배우게 된다.

교육과정에는 18세이상의 희망자들을 초대한다.

이론과정은 청소년창작센터의 전문가 블라지미르 안쿠지노브가 추진하고 실습과정은 <아드레날린>가이드 강사들이 맡는다.

등록은 10월 27일까지며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8 914 746 1268(니나)로 알 수 있다.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курсы начальной турист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дренали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курсы начальной турист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На занятиях начинающие туристы узнают, как подготовить, организовать и провести спортивный поход, прослушают семинары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походах. Кроме теоре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будет ряд практических выходов, где обучающиеся научатся разжигать костер, готовить на нем, рыть снежные норы для ночевки зимой и т. д. Приглашаются все желающие старше 18 лет.

Теоретический курс ведет методист центра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ладимир Анкудинов, практическую часть берут на себя инструкторы-проводники «Адреналина».

Запись продлится до 27 октября.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Подробности можно узнать по телефону 8 914 746 1268, Нина.

8면에 계속)

### 여행을 통해 배우는 학교 학생들, 사할린한인 연구

10월 12일-31일, 19박 20일간 일정으로 서울 로드스플라 학생단(교사2명, 학생 12명)이 사할린 여행을 하고 있다.

길 위의 학교, 로드스플라는 여행을 통해 배우고, 놀며, 연대감을 배우는 3년 교육과정의 대안학교다.

학생들은 여행 속에서 철학과 역사, 인문학을 배우고 국내외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연대하며 소통과 배려, 즐거운 상상과 창의적 에너지를 가진 스토리텔러가 되고자 한다.

이 학교는 2009년에 설립되어 2017년 8기를 맞아 9년째 운영되고 있다.

로드스플라는 15세~22세를 대상으로 20명 정도의 청소년이 한 기수로 구성되어 있다.

매 학기마다 주요 기획들이 있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특강, 사진, 영상, 디자인, 악기와 춤, 외국어, 글읽기, 글쓰기, 역사와 인문학 등의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지난 17일 새고려신문사를 다녀간 로드스플라의 여행단 측은 로드스플라 8기 청소년들이 '사할린한인'을 주제로 사할린 여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

다. 이들은 본 신문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노래도 2 곡을 불러주었다.

이들은 10월 사할린 여행을 하기 전, 8월과 9월에 한국에서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 이주과정', '사할린 문화' 등에 관련한 책을 읽고 공부했다고 한다.

"10월 사할린을 다녀온 후 영상, 문집, 노래, 그림 등 문화작업을 통하여 사할린 한인에 대한 기록 결과물을 만들 계획이다. 이 기록물은 사할린 한인의 이주사를 자세히 공부하고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로드스플라 김미경 교사는 설명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로드스플라 8기 학생들은 이미 사할린국립대 한영과, 사할린한국교육원과 사할린주한인회, 우리말방송 제작팀을 방문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 구경도 하고, 코르사코브 '망향의 탑'에 가서 참배하기도 했다.

사할린주한인회(회장 박순옥) 협조로 로드스플라 팀은 홉스크에서 며칠 보낼 예정이고 북사할린 노글리키 일정도 계획했다.

한국학생단은 10월 31일 귀국할 계획이다.

(배순신기자)

### 1937년 사할린 한인 중앙아시아 집단이주

-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와 정주의 특징 -

진 울리아 (역사학박사, 사할린국립문서보관소)

장 원창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서울)

(전호의 계속)

전체적으로 사할린한인들은 이주결정을 아주 조용하게 따랐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나와 벨루젠 동무에게 한인이주에 관한 업무가 떨어졌다. 첫째, 우리는 한인들은 우리가 오기 전에 그들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그들의 물건들이 포장되어있었고, 어떤 재산들은 이미 팔린 상태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둘째, 그들의 주거지를 순회할 때 한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카자흐스탄은 어떤 기후인지?', '오랫동안 가야 하는지? 듣기로 몇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아마도 카자흐스탄은 힘든 곳이지요?', '거기에 학교나 기술사범학교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들의 노동을 거기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지와 이와 관련된 다른 노동법 문제를 물었다. 정말로 한 기술사범학교의 학생 중 한 명은 '만일 안가도 된다면 기술사범학교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그들에게 이주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한인들은 좋은 기분이 되었고, 이주를 모든 한인의 통합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련정부의 올바른 정책이라고 간주하였다. 정부의 이주결정에 대한 나의 설명 후에 항구에 사는 한인으로부터 의미있는 질문은 없었고, 그들은 대륙으로 가는 것에 대해 만족해 하였다.

두이 계곡의 한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다: 1) 거기에 가까이 숲이 있는지, 2) 경작지가 있는지, 호수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동 도중 돈은 부족하지 않은지 등. 내가 그들에게 국가 비용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자 그들은 만족해하였으며 다시는 질문이 없었다. 내 생각엔 이들의 기분은 좋은 상태였으며, 내 앞에서 어떠한 반소련적 행동이나 발언은 없었다."

그러나 이주의 조직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사할린의 지정학적 위치는 특별한 어려움을 수반했다. 가을의 강풍 시기에 사람들을 계획된 듯바로 이동시키는 것은 매우 큰 위험하였다. 전체의 한인을 그들을 열차로 이동을 위한 모두 두 운송지점까지 집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결국은 한인을 신기 위한 운송 배가 6지점 - 모스칼리보, 나우모브카, 우스페노브카, 빨라빈꾸, 나이-나이, 쉬로카야 빠지로 왔다.

결과적으로 이주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한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가기 위한 이주열차를 타기 위해 사할린에서 대륙으로 보내졌다. 이주한인들에 대한 금전적 정산은 매우 만족스럽게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어업콜호즈 '보스토치노에 모레'는 이주 결과에 대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1) 콜호즈에서 가족과 함께 55명이 순조롭게 이주하였다.
- 2) 초과근무수당과 그들로부터 받은 재산과 텃밭을 포함한 개인적 노임에 대한 최종적 정산은 99,712루블 7까베이카였다. 콜호즈의 이주한인들의 손에 정산서가 쥐어졌다. 콜호즈와 위원회에 남겨진 정산서 사본들은 정산에 대한 동의의 서명을 받았다.
- 3) 모든 콜호즈 이주한인들에게는 개인소유의 비분할재산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고, 거기에 콜호즈지도부는 이주민 이동을 위한 지원 - 상호원조기금에서 8,708.88루블, 사회문화기금에서 5,000루블이 주어졌다.

동시에 콜호즈 한인들에게는 자신의 채무와 새로운 정주지에서 징수액과 새로이 구성될 콜호즈의 비분할기금에 기탁되어야 할 금액이 표시된 비분할기금의 묶에 대한 증명서가 주어졌다.

이와 함께 이주를 위해 빨라빈카에 온 '크라스노이 야르', '크라스노이 보스토크', '노바야 쥐즌' 콜호즈구성원들에 대해 정산이 바르게 되었는지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정산이 완전하게 안된 경우는 정정되어 만기가 도래한 금전을 수령하였다.

#### 중앙아시아에 정착 과정

1937년 11월 6일 우즈베키스탄 내무인민위원회는 아프레산 소령은 모스크바에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그들을 카라칼파키 대신에 카스피해에 연안에 있는 크라스노보드스크와 구리예프 지방으로 보내 달라는 청원(11월 5일 전보)을 한 사할린 이주민 열차가 11월 6일 아티시에 도착했다. 그들은 재차 청원을 하였다. 우리는 상부의 명령이 없어 11월 6일 그들을 아탈해로 보냈다. 만일 11월 7일 상부의 지시가 없다면 이주민들은 11월 8일 고기잡이가 호수로만 제한된 쾨그라드 구역으로 기선으로 보내질 것이다. 이주민들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요청한다.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오는 501/45호 열차에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이 이동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그러한 지방이 없는 만큼 바닷가에서 온 어부들의 배치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 (계속)

### 재외동포재단, 유공 고려인 동포 50명 초청해 모국과 뿌리 잇는다

독립유공자 후손 및 강제이주 당사자 6명 포함 6개국 50명 고려인 동포 방한 16일부터 5일간 서울과 파주 오가며 모국의 변화상과 정서, 문화, 역사 체험

재외동포재단이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러시아·CIS 고려인 동포 50명을 초청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사업은 모국 방문이 처음이거나 모국 방문이 어려운 고려인 동포들을 초청해 위로·격려하고 모국 체험의 시간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6개 국가에 거주 중인 50명의 참가자들은 독립운동가 후손, 강제이주·징용자 본인 또는 후손과 거주국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 동포 및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려인 동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는 아시아의 피카소로 불리는 고 신순남(1928-2006, 신 니콜라이) 화백의 애제자이자 큰 며느리인 신 이스크라,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 계봉우의 후손인 김 에두아르드와 독립운동가 민공호의 후손인 유가이 바치슬라브 등도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17일 오전 국립



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로 7017과 청계천 등 서울과 파주 지역을 방문해 모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보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들은 17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모국에 잠들어 있는 재외 동포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린다. 18일에는 파주 DMZ 투어를 통해 모국 분단의 역사와 현실을 체험하고, 19일에는 경북 궁 및 남산골 한옥마을을 방문한다. 이 날 프로그램은 서울시 후원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서울시 주최 환송오찬에 이어

한복을 입고 모국의 역사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모국 방문이 처음인 독립운동가 및 강제이주자나 후손, 고려인 2-3세 참가자가 많아 이번 사업을 통한 방한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모국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느끼는 시간들을 통해 모국의 정을 느끼고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강하게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현지 다음 세대들에게도 정체성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글짓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글짓기 콩쿠르를 개최합니다.

- **취지:**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문화 대한 자랑과 보람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 **공모대상:** 사할린 동포
- **공모부문:** 체험수기 (후기 - 소감 등)
- **입상자 수:** 3명 (상금)
- **공모주제(테마):** 올해부터 추진된 2-3세 모국방문에 대한 소감, 작년부터 추진된 1세대 동포의료검진에 대한 후기 또는 소감. 한글과 러시아어로 가능.
- **공모기간:** 2017년 12월 20일까지. 우수작은 새고려신문에 게재.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ахалинцев познакомили с новым видом единоборств Масте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из Кореи Ким Бом Чоль провёл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хапкидо

12 октябр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сетил гранд мастер хапкидо из Южной Кореи, обладатель восьмого дана Ким Бом Чоль. Именитый спортсмен провёл дл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школы грэпплинга и джиу-джитсу мастер-класс, показав эффективные приёмы самозащиты.

- Ребята впервые знакомятся с хапкидо. Сегодня у нас есть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ть азы и прикладные приёмы, которые мы в дальнейшем сможем применять в своей борьбе. Наши виды спорта схожи. Техника хапкидо пополнит наш багаж знаний и опыта,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федерации джиу-джитсу, вице-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грэпплинг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слав Глухов.

Ким Бом Чоль изучает боевое искусство около 40 лет. По его словам, хапкидо достаточно молодое направление и существует всего 60 лет. В Корею это не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вид спорта, но находится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сле тхэквонд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н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отражения ударов противника, а не для нападения. Тем не менее, как и в любом другом единоборстве, в хапкидо можно и атаковать.

Гранд мастер рассказал, что в Корею многие женщины подвержены насилию. В целях самозащиты они изучают именно эту технику боя. Более того, кореянки занимаются хапкидо в армии. Он добавил также, что в Стране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ах служат, в основном,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ы прекрасного пола.

- Я приложу все усилия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хапкидо и на Сахалине, - подчеркнул Ким Бом Чоль.

По мнению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о спорту, туризму и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е, олимпийского чемпиона по боксу Олега Саитова, новое направление, безусловно, нужно развивать на острове.

- Эт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и достаточно жесткий вид спорта. Он применяется в армии, спецслужбах и других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ах Кореи. К сожалению, на Сахалине нет федерации хапкидо, но есть люди, которые его практикуют. Думаю, что при наличии желающих заниматься и преподавать боевое искусство, мы сможем создавать секции и тренировать ребят. Уверен, что сегодняшнее занятие заинтересовало молодёжь, - резюмировал Олег Саитов.

## Мин Тэ Чуру присвоено звание гранд мастера восьмого дана по тхэквондо

Комисс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кадемии тхэквондо (ВТФ) "Куккивон" в Сеуле утвердила результаты экзаменов, которые сдавал сахалинец Мин Тэ Чур (Мин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и присвоила ему звание гранд мастера 8-го дана. Он стал вторым мастером в истории тхэквондо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имеет столь высокое звание. Первым, кому оно было присвоено, был основатель тхэквондо (ВТФ) в России Цой Мен Чер (Москва). Это случилось в 2016 году. Речь идет о званиях для действующих спортсменов и их тренеров (не о почетных данах), сдающих специальный экзамен.

Спортсмен Мин Тэ Чур начал заниматься с 12 лет, в этом возрасте пришел в секцию спортивной гимнастики ФСО "Спартак" к тренеру Роберту Познеру. Занимаясь спортивной гимнастикой, не раз становился призером, чемпионом области, призеро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института по распределению работал в Зеленодольске Татарской АССР, где впервые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восточными единоборствами. В 1979 году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первом всесоюзном семинаре по карате в Москве. Это было время необычного роста популярности восточ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в России. По приезду на Сахалин в 1979 году организовал секцию карате.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секция карате была только в ФСО "Динамо" (тренеры — В.Хорохордин, Ю.Потапенко).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в становлении и развитии карате оказали инструкторы рукопашного боя В.Забелин,



В.Киселев, которые отлично понимали, что восточные единоборства могут помочь воспитанию педагогически запущенных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оградить их от вредного влияния улицы, лучше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службе в армии, в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ах. Тогда же в секции карате при школе №3 занимался ученик этой школы Сергей Ромашин, впоследствии ставший Героем Росс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школа №3 названа его именем и ежегод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одится турнир по рукопашному бою, посвященный памяти Героя.

В 1983 году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был проведен чемпионат области по карате. С 1984 года карате было под запретом. И только после сеульской олимпиады в 1988 году в моду входит другой вид восточного единоборства — тхэквондо. В 1990 году,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и и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СССР, нашу страну посетил мастер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кадемии "Куккив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льяновске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всесоюзный семинар тренеров

по тхэквондо. По приезду на Сахалин была создан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тхэквондо", которая занималась популяризацией занятий тхэквондо среди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развитием тхэквонд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н Тэ Чур стал пер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эт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 1990 по 2006 годы).

В 2000 году Мин Тэ Чур инициировал открытие отделения тхэквондо при СДЮШОР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Многие из его учеников были призёрами и чемпион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России. Двухкратная чемпионка России по Пхумсэ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техническому комплексу) Кристина Ким в составе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России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7-м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по тхэквондо,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Колумбии. За свою спортивную карьеру Мин Тэ Чур воспитал 8 мастеров спорта России, сам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был чемпионом, призером России по Пхумсэ (в 2008, 2009, 2010 годах).

С 2008 года входит в соста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развитию тхэквондо, в которо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200 стран мира.

Награжден знаком "Отличник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дипломом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и, победитель смотра-конкурса "Спортивная эли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является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аттестац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на Даны, Пумы Союза тхэквондо России.

## Принудитель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о. Сахалин в 1937 г.: особенности выселения и вселения на нов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Дин Ю.И., к.и.н.  
Чжан Вончан, РК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38, 39, 40)

13 ноября Апресян докладывал в Москву: «10 ноября прибыл из ДВК в Узбекистан последний эшелон переселенцев корейцев. Всего нами принято 54 эшелона, 16307 семейств, 74500 человек. Все расселены, кроме 2113 сем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на перевалке в Аральском море и Амударье для Каракалпакии. Переключаю работу аппарата на оказание содействия советскому аппарату по хозяйственному освоению переселенцев. Основная неразрешимая трудность по размещению — это забросить и трудоустроить 2000 семейств в основном рыбаков для Каракалпакии. Прибытие их в ноябре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навигации создает особое напряжение. В Аральском море штормы, в низовьях Амударья температура 10 градусов ниже нуля, пароходы к людским перевозкам не приспособлены, места поселений в основном не обжитые. Принимая меры мобилизации усилий всех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шу срочных указаний по линии Наркомвода Аральскому и Амударьинскому пароходствам безусловно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авку переселенцев на пункты поселения».

14 ноября поступили сведения о переселенцах для Каракалпакии. В октябре было завезено 800 хозяйств (3620 человек), в ноябре до 13 числа — 650 хозяйств (3100 человек), также планировалось перевезти 17 и 18 октября 850 хозяйств (3900 человек), т.е. всего в Каракалпакии планировалось заселить 2300 хозяйств (10620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из 2300 хозяйств, основная масса рыбаков (до 1200 хозяйств из 1500) могла быть размещен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айонах (Кунград, Муйнак). Также указывалось, что из Аральска необходимо вывезти 613 хозяйств (2211 человек) для расселения в районах Узбекиста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лхозников, рабочих ремонтных заводов, служащих).

Однако перевозка через Аральское море столкнулась

с трудностями. Тачмедов докладывал Мееру 16 ноября: «Все три парохода стоят в море на якорях в 150 км от Талдыка направлением на Аральск. Шторм 8–9 баллов. Одну баржу на пароходе Максим Горький сорвало, унесло. Мороз 15 градусов, побережье Аральска покрылось льдом. Есть основание полагать, что планируемого количества людей перебросить не сможем. Госпароходство настаивает на прекращении навигации. Настроение переселенцев с исключением крепких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лхозов ехать в центральные районы Узбекистана».

Тех переселенцев-корейцев, которых не успели в связи с погодными условиями перевезти на пароходах по Аральскому морю (около 6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лностью вывезли и разместили в совхозном секторе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Узбекистана. Застрявшие в Талдыке в следствии закрытия навигации по Амударье 850 человек, были размещены в аулах Муйнакского района Каракалпакии. «Этим самым размещение корейцев по пунктам посел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закончено», — докладывал Апреся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з 74500 человек, переселенных в Узбекистан, на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было помещено 613 семей (2211 человек).

Однако к незавершенному вопросу вернулись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21–22 янва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бюро Гурьевского окружного комитета КП(б) было отвечено положительно на ходатайство корейцев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лхоза «III Интернационал» о его переезде в Гурьевский округ. Как мы видим, все таки часть корейцев смогла осуществить свой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замысел — поселиться в районы, где они могли заниматься морским рыболовством.

13 марта 1938 г. бюро Гурьевского окруж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становило:

«Распределить прибывших в Гурьевскую область 1322 хозяйства, корейцев устроить в следующем порядке:

- а) на рыбодобыче колхозной 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1096 хозяйств;
- б)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полеводство) — 120 хозяйств;
- в) в предприятиях и промысловой кооперации — 50 хозяйств;
- г)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кооператив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и учреждениях — 56 хозяйств.

По районам и аульсоветам:  
В Денгизском районе — на рыбодобыче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Сучан» и «Трудрыба» в количестве 300 хозяйств, в системе Ук Треста (Чертамаевский рыбозавод) — 150 хозяйств, и в системе Сафвонском МРС и вновь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МРС — 26 хозяйств.

В Баксаеком районе — 325 хозяйств, из них на рыбодобыче корейские колхозы «Павловский» и «Авангард» в количестве 240 хозяйств, и в порядке доприселения в существующие колхозы района — 85 хозяйств.

В город Гурь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 295 хозяйств, из них на рыбодобыче в корейский колхоз «III Интернационал» — 80 хозяйст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о системе Ук Треста (рыбозаводы) — 100 хозяйств, в системе комбината им. Кагановича (стационарные рыбозаводы) — 80 хозяйств, в системе Гурьевской МРС — 35 хозяйств.

В предприятиях системы промкооперации (артели) — 50 семе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кооператив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организациях 55 семей.

В Испульском районе — 120 хозяйств, в порядке доприселения в существующи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артели.

По постановлению СНК КССР и ЦК КП(б)К организовать моторно-рыболовецкую станцию с добычей в море, охватив корейские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колхозы Денгизского района, колхозы «Сучан» и «Трудрыба».

Подводя итог исследованию истории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еверного Сахалина в Среднюю Азию, мы видим, что большая их часть в составе других корейце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анимавшихся до депортации морской рыбной ловлей, была переселена в Каракалпакию, на Аральское море и — уже в 1938 г. — некоторая часть доселена в Гурьев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побережье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рейцы, привыкшие к работе в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могли и на новом месте жительства заниматься прежней работой.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Россия намерена продолжать совместный с СК проект Рачжин-Хасан

Россия намерена продолжать совместны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роект Рачжин-Хаса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18 октября американская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ссылаясь на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ла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а Мацегору. Посол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Россия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родолжая обмены с Севером в сферах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образования, работы с молодёжью и в других гуманитарных областях. Проект Рачжин-Хаса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угля из Сибири до порта Рачжин, откуда он отправляется в Китай. Министр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о сообщи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объем перевезённог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угля,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 отметку в 2 млн тонн.

## Глава МИД РК Кан Гён Хва встретилась с заместителями глав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ведомств Японии и США

Важнейшим фактором в разре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является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Об этом заявила в среду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н Гён Хва на встреч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Японии Синсукэ Сугиямой, который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 активные контакты сторон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тот же день Кан Гён Хва встретилась с помощником госсекретаря США Джоном Салливаном. Она призвала США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прислать в Сеул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осла, поскольку данная должность является вакантной с января. Кан Гён Хва также отметила, что визит Салливана в Сеул является хорошим шансом не только для согласования позиций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но и деталей предстоящего визит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имели неофициальные контакты в Швейцарии

В сентябре в Швейцарии состоялись контакты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ИД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в рамках неофициа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Церматт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метил, что никаких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достигнуто не было, Север просто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вторил свою прежнюю позицию.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ходила с 11 по 13 сентября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госучреждений и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н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Женевским центром полит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GCSP) и МИД Швейцарии. В ней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эксперты РК, КНДР, США, Китая, Японии и России.

## Мун Чжэ Ин посетил 22-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 Пусане

15 окт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посетил 22-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 Пусане, который открылся 12 октября.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смотрел фильм «Пропавшая женщина», поговорил со зрителями. Мун Чжэ Ин посетил мероприятие с целью выразить поддержку организаторам. После просмотра фильма он пообедал с режиссёром, актёрами и студентами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их вузов.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указал, что одним из факторов, позволивших кинофестивалю в Пусане войти в пятёрку крупнейших в мире, является независимость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мэрия Пусана включили фестиваль в «чёрный список», назвав его местом демонстрации фильмов левого толка.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кинофестивалю, не вмешиваясь в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ь.

22-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BIFF) в Пусане проводится с 12 по 21 октября.

В его программе - 298 фильмов из 75 стран мира. По сообщению оргкомитета мероприятия, показы кинофильмов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на 32 экранах. Планируется показать 100 мировых премьер, 29 фильмов будут впервые показаны за пределами страны-производителя.

(RKI)



## В Приморье выходит в свет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Сталинская депортация 80-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затронула каждую корейскую семью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Валентин» в серии «Земля вольной надежды» выходит в свет особая книга – «Депортация.1937»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 Юлия ПАК). Она посвящена одной из самых драматических страниц за всю 150-летнюю истор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 Сталинская депортация 80-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затронула каждую корейскую семью, – говорит автор книги Валентин ПАК. – Наша семья не стала исключением. Моих родителей тоже выслали. Я посвящаю эту книгу им – отцу ПАК Пен Дю (Петру Владимировичу) и маме – ЮГАЙ Евдокии. А также всем советским корейцам, кто был депортирован осенью 1937 года. Согласно офици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е их было 171.781 человек.

В новой 800-страничной книге публикуются архивные списки – повагонные и посемейные, –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корейце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рхивов Приморского,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ёв, Амурской,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ей. В них – 20.428 человек. Сведения о 14.897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публикуются впервые. Это всё, что удалось разыскать. Издать полный список невозможно по той простой причине, что почти 88 процентов списков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х переселяли в Среднюю Азию, не сохранились. Очевидно, большая часть документов была утеряна.

Эта книга для всех,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историей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Чтобы знали. И помнили.

Источник: «Утро Востока»

## ВНИМАНИЕ

27 октября 2017 г. в 17.30 в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ККЦ) состоится открытие фотовыставк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озвращение»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Ли Е Сика. Здесь же состоится презентация его фотоальбома «Возвращение», изданног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2016 г.

Приглашаются все желающие.

## 노루의 사향을 팝니다!

г. Иркутск, тел. : 8-924- 544-70-82

e-mail : she.xiang@yandex.ru

ооо «мускон - соболь»

реклама

## Молодежный научный семинар АНТОК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Рады сообщить вам о том, что 23 ноября 2017 года в Москве состоится Молодежный научный семинар АНТОК, проводимый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кадемика РАН Сона Э.Е.

Целью мероприятия является популяризация научной 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еминара выступают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АНТОК 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и KORUSTEC.

Молодежный научный семинар АНТОК пройдет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цы Crowne Plaza Hotel, по адресу: Москва, Краснопресненская наб., 12.

Программа семинара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широкий круг участников – студентов бакалавриата и магистратуры, аспирантов, инженер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молодых уче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и специальности участников нет.

Программа на один полный день включает разные виды занятий:

- лекцию академика Сон Э.Е., в которой он расскажет о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х научных проблемах в физике, космосе и энергетике, поделится личным опытом руководства научными мегапроектами,
- круглый стол, на котором вы примете участие в дискуссии об актуальности научной карьеры для молодежи сегодня,
-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созданию и продвижению собственного интернет-блога, после которого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станет продвинутым пользователем, владеющим навыками создания блога (WordPress/Wix), SEO-оптимизации, рекламе и работе с аудиторией.

Кроме этого, запланирована секция стендовых докладов –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в комфортной друж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е потренироваться в презентации своей курсовой/выпускной/научной/инженерной работы и получить за это ценные призы и сертификаты. По окончании рабочей части семинара состоится товарищеский ужин.

Участие в семинаре бесплатное, н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качестве участника, направив заявку по установленной форме в Оргкомитет до 15 ноября 2017 года и получить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 участника.

Участникам стендовой секции вместе с заявкой необходимо направить в адрес Оргкомитета тезисы доклада объемом 1 или 2 полные страницы формата А4, шрифт Times New Roman, 12 кегль. Кроме тезисов участник секции должен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дготовить плакат формата А1 в книжной (вертикальной) ориентации, отражающий 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доклада, в день проведения семинара доставить его и разместить на стойке в зале. Канцелярски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для крепления плакатов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ены Оргкомитетом. Если вы намерены участвовать в семинаре, но не успеваете подготовить заявку, просим, не откладывая, известить об этом Оргкомитет и указать ожидаемую дату представления заявки.

Рабочие языки конференции – рус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Приглашаем студентов 1-3 курсов на семинар в качестве слушателей. Будем рады, если вы сможете оказать посильную волонтерскую помощь. Свяжитесь с Оргкомитето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Контактное лицо от Оргкомитета – Дмитрий Чо, Ирина Ким,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AKSTSRussia@gmail.com](mailto:AKSTSRussia@gmail.com).

О предыдущей молодеж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АНТОК можете прочитать на сайте АНТОК: <http://www.aksts.ru/node/153> или на сайте конференции: <http://y2016.aksts.ru>

Оргкомитет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새고려신문 살리자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По итогам 9 меся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ют 108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объектов торговли

Во исполнение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л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5-2016 годы и период 2020 года, утвержденной приказом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 от 25.12.2014 № 2733, в рамках под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и поддержка товаропроводя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егулирование рынк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сырья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на 2014 - 2020 годы», утвержденной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06.08.2013 № 427,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родолжена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объектов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целом,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торгов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устойчивой динамикой роста. Например, в 2013 году их количество составляло 45 объектов, на начало 2017 года - 92 объекта.

По итогам 9 месяцев в 18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рганизованы 105 магазинов и 3 отдела, из них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действует 31 социальный объект торговли. По оценке, удельный вес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 общем количестве торговых объектов составил 2,7%, а в объеме торговых объектов, реализующих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 5,3%.

Товары, реализуемые в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х, а их в ассортиментном перечне основных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утверждено 24 наименования, являются общедоступными для все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где в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магазинах обслуживаются только определенные льготные категории граждан.

При средней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ой наценке на товары, сложившей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араметре 30,5%, торговая наценка на данные товары в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объектах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составляет 10-15%, без учета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В рамках содействия формированию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истемы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торговых объектов, разработаны специальные м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Так, в 2016 году объемом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субъекта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чьи объекты получили статус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превысил 10 млн. рублей.

## На областной станции переливания крови ждут молодых доноров

В учреждении стараются постоянно привлекать новых людей, чтобы в перспективе не возникало рисков по регулярному пополнению запасов крови и плазмы.

- Как только 18 исполнилось, сразу пришел. Вот уже почти год, как я донор, помогаю людям. Друзей агитирую, трое уже попробовали, - рассказал пациент станции переливания крови Алексей Мирошевский.

-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понимать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милосердие, сострадание к ближнему. Кровь необходима во многих случаях: операции, несчастные случаи, ДТП. Часто бывает, когда люди приходят - сдают кровь для сослуживцев, друзей, оказавшихся в больницах, - напомнил главный врач станции переливания крови Андрей Воробьев. - Сейчас проблем с пополнением запасов нет. Если возникает потребность в какой-то группе крови, то мы оперативно обзваниваем наших постоянных доноров.

В среднем ежедневно на станции сдают кровь 50 человек. 15-20 из них - люди, которым меньше 40 лет. Постоянные доноры периодически уходят, кто-тоглядывается на возраст, переезжает и т.д. Верхняя планка не ограничена, все зависит от состояния здоровья.

- Раньше предел был 60 лет, теперь его нет. Но если, в этом возрасте и позднее человек продолжает к нам приходить, то он должен принести справку.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у нет проблем с сердцем, почками, печенью, желудком, легкими, - обозначила критерии отбора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ением комплектования донорских кадров Римма Кашина. - Если говорить об общих требованиях, немало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вес. Мы не принимаем людей, у которых он меньше 50 килограммов. Объем циркуляции крови зависит от роста и от веса. Если у человека её всего 2,5 литра, а мы изымаем 450 миллилитров, то может развиться острая кровопотеря.

Стать донором можно с 18-ти ле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нции часто сами идут к молодежи, проводят выездные акции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Рассказывают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процесса, напоминают о том, что обновление крови полезно для здоровья человека сдающего кровь.

- Наши постоянные доноры порой приводят своих детей. И таких примеров всё больше, они тоже начинают ходить к нам регулярно, - поделился наблюдениями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заготовки крови и её компонентов Александр Фролов.

Чтобы восстановиться, донору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ыходной день, еще один добавляется к отпуску. Кроме этого компенсируются расходы на питание, предусмотрена и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это около 1 100 рублей.

##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дет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к Новому году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облик первого этажа медучреждения изменится кардинально, работы строители ведут поэтапно. Сейчас все силы направлены на холл, в котором ранее располагалась регистратура. Этому подразделению поликлиники на время пришлось переехать, закрыт и центральный вход в здание.

- Временно вход находится с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а регистратура переехала в помещение кафе. Места для гардероба пока нет, поэтому одежду надо носить с собой, - сообщила о неизбежных неудобствах главный врач поликлиники Татьяна Колба. - Переехать на время в другое здание мы не можем. Стараемся максимально снизить неудобства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но полностью их не избежать. В день мы принимаем до 2000 пациентов, изначально поликлиника была рассчитана на прием 600 человек.

Здание медучреждения ввел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2000 году, с тех пор это первый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он затронет все помещения, объем работ строители планируют выполнить до Нового года. На эти цел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ено 1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Ведутся демонтажные работы. Снимаем подвесной потолок, плитку убираем. Затем займемся заменой инженер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системы тепло- 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канализации. Потом приступим к созданию нового облика внутренне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Будут преобладать кремовый и бежевый цвета,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ячеслав Малюшкин.

После ремонта в поликлинике планируют изменить особенност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регистратуры. Для медрегистраторов будет минимизирована работа с телефонными звонками. Одновременно здесь занимаютс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м их приёма в колл-центре, в процесс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там установят современное цифр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е будет отнимать время и работа с картойкой, её поместят в отдельное помещение.

- Это делается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екта «Бережливая поликлиника», в котором мы участвуем. Его главная цель - сберечь время пациента. Ещё в начале апреля мы определились с тем, что нам надо для этого сделать и поэтапно этим занимаемся, - подчеркнула Татьяна Колба.

Одна из основных задач реконструкции -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В коридорах на полу появятся тактильные плитки,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киоски для слабослышащих. Входная группа в медучреждении станет более удобной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ее ремонт также начнет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Дипломанты конкурса выставки - ярмарки «Книжное ожерелье Тихого океана»

Изд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отмечены дипломами конкурса «Лучшее краеведческое издание»,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 6 по 9 октября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ки - ярмарки «Книжное ожерелье Тихого океана».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учебные и научные, издательские и полиграф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архивы, библиотеки, музе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а также отдельные авторы и составители. В конкурсе участвовало 81 наименование печатных и электронных изданий.

Три издания музея отмечены дипломами в номинации «История — наука для будущего».

Диплом III степени — книга «Аборигены Сахалина глазами русских офицеров (1860–1870 гг.)». Авторы - составители: В.М. Латышев, Г.И. Дударец. В настоящем издании опубликованы давно ставшие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ой редкостью работы Ф.М. Депрерадовича, М.М. Добротворского и А.В. Васильева, посвященные аборигенам Сахалина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IX века.

Диплом II степени — книга В.В. Щеглова «...Имени 10-летия Октября. История шахты «Октябрьская» 1913–1963 гг.». Читатель узнает историю некогда широко известного, а ныне забыт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 первенца совет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 шахты «Октябрьская». В книгу включены статьи,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которых ранее не публиковались, материалы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 воспоминания бывших жителей шахтерского поселка.

Дипломом I степени и памятным знаком удостоено периодическое издани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 1). Данное издание является преемником журнала «Известия Института наследия Бронислава Пилсудского». На его страницах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новые, не известные ранее материалы, относящиеся

к биографическому, научному, рукописному наследию Б.О. Пилсудского — одного из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конца XIX — начала XX веков.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брали лучшие молодёжные проекты по развитию города II муниципальный форум «Наш Южный» завершил работ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ют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ЦМИ) совместно с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форум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60 молодых людей - студент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бота была построена по двум направлениям: "Город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и "Город возможностей".

В течение четырех дней молодежь обсуждала с экспертами возможность создани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арт-объектов, бренда города, ТОСов, говорили о поддержке молодеж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оциальных лифтах, лидерстве и демографии. Кстати, в качестве экспертов выступили профиль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Хабаровска и Москвы.

Вместе с директор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центра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г. Хабаровск) Ниной Поличка ребята разобрали тему доступа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емуницип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услуг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а также побеседовали о дефицитных услугах на рынке. Были презентованы успешные проекты, реализуемые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НКО).

Вопросы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спада и оттока молодежи из региона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вместе с начальником отдела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г. Москва) Иваном Ефимовым.

Помимо теоретической части,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работали над своими проектами. Их презентовали на закрытии форума.

- Ребята подготовили четыре интересных проекта. Первый - это минимизация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В его рамках предложено оснастить экипажи ДПС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оказания пер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внедри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изучению ПДД. "Здоровая семья" предполагает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сайта по репродуктивному здоровью. Проект "Деалкоголизация" направлен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горожан к активн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Кроме того,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проект по здоровому питанию.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се работы имеют шансы быть реализованными. Я планирую ходатайствовать перед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города за двух ребят, чтобы их включили в состав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разработке проектов, - отметил Иван Ефимов.

- Ребята очень инициативные, это радует. В них много креатива, они могут придумать что-то совершенно новое.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предлагают хорошие идеи. Главное, что мы помогли донести до них знания,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в дальнейшем реализовать эти инициативы, - поделилась Нина Поличка.

Эксперты изучил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проекты и выбрали наиболее проработанные и актуальные из них. Так, был отмечен проект "Зацени свой город" - это концепция фестиваля арт-объектов в массовых места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возле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или в сквере около Чехов-центра. Главная идея - провести конкурс, в котором могут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се желающие инициативные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 свои арт-объекты в рамках заданной тематики.

Как рассказал один из разработчиков проекта Александр Буторин,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форума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именно с учетом потребностей города и молодежи.

Вторым отмеченным проектом стала разработка Дарьи Головиной. Она предложила превратить пространство вдоль реки Рогатки в своеобразный Арбат, гд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свое врем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личных творческих и молодежных субкультур, дизайнеры, художники. Эта территория, по мнению девушки, могла бы стать прекрас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различных фестивалей, галерей и выставок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А связать два берега реки она предлагает мостами с различной тематикой, например, мостом "надежд" и "встреч".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форума "Наш Южный" были отмечены все его участники. Кроме того, вице-мэр Елена Федорова вручила авторам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грамоты. Она поблагодарила участников за активность, пожелала им не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и обязательно верить в себя.

И.о. директора ЦМИ Олег Гортованов отметил, что работа над проектами продолжится.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получили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доработке, самые инициативные ребята соберутся на базе ЦМИ и буду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вои наработки и параллельно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компетент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для воплощения своих идей в жизнь.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제16차 세계한상대회 한상, 청년실업문제 '구원투수'로 나선다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경제인인 한상(韓商)들이 현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인재육성 등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지원 내용에 대해 발 벗고 나선다.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리는 제16차 세계한상대회의 해외인턴채용 프로그램인 <한상&청년, Go Together!>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상기업에 국내 청년 100여 명이 바로 채용된다고 밝혔다.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상&청년, Go Together!>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과 한상(韓商)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 면접과 멘토링, 특강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국내 청년들의 해외 진출기회 마련을 위해 2015년 세계한상대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30개국 125개 기업에 2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2015년 및 2016년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58명의 인턴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는 2번의 모집을 통해 106명의 인턴

을 선발했고, 이번 대회에서 100여 명을 추가로 더 선발할 예정이다.

2015년 및 2016년 인턴 중 28명은 현재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돼 현지에서 차세대 한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채용된 100여 명은 현재 인턴십 진행 중이다.

대회 마지막 날인 27일에 진행되는 <한상&청년, Go Together!>는 예년까지 진행됐던 반일 프로그램에서 확대돼 하루 종일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4기 현장 면접과 특강 및 토크콘서트, 청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상&청년, Be Partner!'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부의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4기 면접에서는 30개국 70개 한상기업이 참여해 사전 서류 심사를 통과한 200여명의 인턴 지원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개그우먼 박지선의 진행 아래 특강 및 토크콘서트로 꾸며지는 2부에서는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대표 한상기업인 코라오 그룹 오세영 회장과 미국에서 모자 제조사로 유명한 Flexfit 그룹 조병태 회장이 연사로 나서 국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독려하는 강연을 한다. 이어서 EBS 스

타강사인 최태성 한국사 강사의 특별강연과 개그우먼 박지선의 토크 콘서트도 진행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청년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컨설팅하는 '한상&청년, Be Partner!'가 진행된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제품 소개 및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한 현장 자문 및 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대륙별 해외 취업 정보관 부스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외교부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가 참여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청년 해외진출사업에 대한 설명 및 개별상담을 진행하며, 메이크업 및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체험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국내 청년 실업난이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해외인턴 사업을 올해부터는 더욱 확대 운영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며, "도전정신을 갖춘 국내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방향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상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을 더욱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취재)

###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5

### 너의 조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전화의 계속)

(3) -여간 + -지 않다 "очень..."

Внимани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казуемое имеет отрицательную форму, все высказывание имеет положительное значение.

Примеры:

이 일은 여간 어렵지 않다. → Это дело очень сложное.

어제는 여간 춥지 않았다. → Вчера было очень холодно.

그는 여간 똑똑하지 않아요. → Он очень умный.

(4) -은/는 고사하고

"не говоря о том, что...", "оставляя в стороне...", "помимо того, что..."

Примеры:

이 책은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다고 하더니만, 1시간은 고사하고 3시간도 부족하겠다.

→ Говорят, она на диету села, но она, по-моему, не сокращает количество потребляемой пищи, а ест еще больше.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익은 고사하고 본전도 못 찾겠다.

→ Как не смотри, но он все же выглядит надежным человеком.

그 사람이 갔음직한 곳은 다 찾아보았다.

→ Я с таким трудом начал бизнес, а сейчас не могу даже затраты окупить, не говоря уже о прибыли.

(5) -(을)를 막론하고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не говоря уже об ..."

Примеры: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ла и возраста.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нг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ичин, насилие должно быть устранено.

### 쓰기 연습 Письменные упражнения

1. '-에 불과하다'와 '-에 지나지 않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보기와 같이 고치세요.

보기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에 지나지 않았다.

→

(2) 이리나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소문에 불과했다.

→

(3) 인생은 연극에 불과하다.

→

(4) 우리 친구에 지나지 않는다.

→

2. 다음 ( )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보기 경우에, -의 경우에, -(으)ㄴ 경우에 / -는 경우에 / -(으)ㄴ 경우에

(1)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다) / 언젠지 연락하세요.

→

(2) 비가 (오다) / 경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날씨가 나쁠 때는 비행기가 (되돌아가다) / 있습니다.

→

(5) 비가 억수로 오는 것을 보니, 여간해서 멈출 것 (같다).

→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우리말로 깨닫다]

### 일청(日淸)과 청일(淸日) 사이

시모노세키[下關]가 한국인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아마도 시모노세키 조약 때문일 것이다. 역사책에서 배웠기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조차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으리라. 시모노세키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내가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장소를 찾은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조약 체결 장소를 찾았을 때 감회는 생각보다는 아주 화려한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긴 세월의 흐름과도 무관하지는 않으리라. 일본 역사에서 어쩌면 이곳이 가장 자랑스러운 공간이 아닐까? 하지만 방문자 중 많은 사람이 중국인과 한국인인 점은 역사를 다시 곱씹게 했다.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은 왠지 어색하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무튼 그곳에서 제일 먼저 내 눈에 뜨인 것은 일청전쟁(日淸戰爭)과 일청강화기념관(日淸講和記念館)이라는 어휘였다.

일청전쟁이라. 그 전쟁의 승자는 일본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전쟁을 청일전쟁(淸日戰爭)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유는 금방 짐작이 갔다. 일본이 싫어서일 거다. 다른 이유로는 오랫동안 청나라와 친선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생각해 보니 러일전쟁에서도 우리는 러시아를 앞에 두고 있었다. 러시아 하고도 오랜 친선이 있었나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냥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라 이름의 순서를 만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보면서 한국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조약의 첫 번째 내용이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라는 것이었으니 한국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 준다는데 어찌 기본이 나쁘겠는가마는 누구나 알다시피 이 조약의 문구는 앞으로 펼쳐지는 현실과는 사뭇 달랐다. 일본이 조선의 독립

을 보장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조선을 강점하였으니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일본에게 시모노세키조약은 자랑스러운 역사이겠지만 한국에게는 뼈아픈 역사이다. 망국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조약의 다른 내용으로는 청나라가 요동반도와 대만 등을 일본에 할양하고 당시로는 엄청난 액수인 3억 엔의 막대한 배상금을 주는 등의 청에게는 굴욕적인 역사의 장면이 있었다. 조약과 협상에는 국가 간의 감정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살피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중국인에게는 청일전쟁만큼 치욕적인 전쟁이 없었던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한국은 여전히 청일전쟁이라고 부르고, 여전히 중국 중심의 관점을 갖는다. 복잡한 문제다.

청일, 일청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여기에는 더 비참하고, 부끄러운 한국의 역사가 담겨있다. 부패한 탐관오리에 저항하는 농민들이 일으킨 동학혁명에 놀란 정부가 청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이에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군도 참전하게 된 것이다.

혁명을 일으킨 세력은 외세의 우세한 화력에 쓰러지게 되고, 결국은 패퇴한다. 이후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청과 일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이어 조선 땅에서 두 나라는 혈전을 벌이고 끝내 일본이 승리하게 된다. 이 전쟁의 결과물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자신의 역사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장면에 한국인의 분노와 서러움이 느껴진다. 자신의 민중이 일으킨 혁명을 진압해 달라고 외세에 부탁하는 위정자를 가진 슬픈 백성이다. 철저히 관군과 일본군에게 몰살당한 동학 농민들의 슬픈 분노가 느껴진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우금치마루의 통곡은 소리가 없다고 묘사되었을 것이다.

최근에 텔레비전 한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이 산하는>이라는 노래는 그 장면을 아프게 증언하고 있다. <우금치마루에 흐르던 소리 없는 통곡이여>. 시모노세키에 다녀오고 나서 이 노래가 계속 입에 맴돈다. 시모노세키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역사의 공간이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 사할린국립대 여대생, 전국 콩쿠르에서 <미스 예술>으로 수상

<2017 러시아 미스 대학생>콩쿠르의 수상자 중 한 명은 사할린국립대 언어학부 역사·동양학과와 와르와라 사모일로와 학생이다. 그녀는 LED 바이올린 연주로 예술부문에서 <미스 예술>로 수상했다.

첼라빈스크에서 진행된 콩쿠르는 전 러시아 33개의 지역을 대표하여 47명의 여대생들이 참가했다. 바바라는 "콩쿠르에 참가한 하루하루의 일정은 빡빡했으나 보람되고, 다채로운 추억들로 채워졌다."고 말하고 "새벽 2-3시에 잠들고 새로운 기운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 새벽 6시에 일어났다."라고 덧붙이고 "이 대회를 통해 새로운 기획들 속에 자신을 펼치고 도전할 준비와 더 많은 자신감과 경험을 쌓게 되었다."고 요약했다.

연습 외에도 콩쿠르 참가자들은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사진촬영도 하고, <퀴즈 플리스> 지적 게임도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할 장애아를 찾아 함께 골볼(goalball) 게임도 했다.

##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получила приз в номинации "Мисс творчество"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Одной из победительниц конкурса "Мисс Студенчество России — 2017" стала учащаяся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Варвара Самойлова. За свой творческий номер — игру на светодиодной скрипке — сахалинка удостоилась титула "Мисс творчество".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л в Челябинске,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47 студенток из 33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 Каждый день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был очень плодотворным и наполнен ярк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расписание было плотным, — рассказывает Варвара. — Ложились спать примерно в 2-3 ночи и просыпались в 6 утра, чтобы с новыми силами приступить к репетициям.

Помимо репетиций, для участниц конкурса прошла фотосессия в коктейльных платьях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игра "Квиз плиз" состоялся визит к будущим паралимпийцам, детям-инвалидам, с которыми конкурсантки сыграли в новую для себя игру — голбол.

## 사할린 포베지노마을 주민 곰에게 손을 물려

곰이 스미르니호구역에 포베지노 마을의 주민을 공격했으나 다행히도 희생되지는 않았다.

이 마을에 한 남성이 저녁 8시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중 집 대문 앞에서 곰을 만났다. 포베지노 주민

말에 따르면 곰은 별로 크지 않았고 집 뒷마당에서 걷고 있었다고 한다. 남성이 크게 소리치기 시작하자 곰과의 마주침은 큰 사고없이 끝났다. 짐승은 이 남성의 오른쪽 손바닥만 물고는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한 번 뒤를 돌아본 후 떠났다.

피해 남성이 사냥꾼들을 부르자 그들은 그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보냈다. 현재 포베지노 주민의 상태는 호전되어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한다.

현장에 출동한 사냥꾼들은 곰이 마을을 떠난 것을 확인했다.

포베지노 마을에서는 이미 몇 번 곰의 출몰이 목격되어 주민들이 위협에 노출되어서 곰을 사살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사할린에서 곰의 습격으로 인해 두 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올렸었다. 마카로브구역에서 사냥꾼과 아나와 구역에는 낚시꾼이다.

가을철 시작부터 주내에서는 곰 83마리를 사살했다. 이는 작년 지표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수치로 2016년에는 섬지역 주민들을 공격하는 곰 30마리를 사살했다.

## Медведь прокусил руку жителю села Победино на Сахалине

Медведь напал на жителя села Победино Смирн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 счастью, обошлось без жертв.

Мужчина возвращался домой после восьми вечера, прямо у калитки встретил хищника. Тот, по словам побединца, был некрупным и ходил прямо по приусадебному участку. Мужчина начал кричать, встреча с медведем закончилась для него относительно благополучно: хищник только прокусил ему кисть правой руки. И спокойно, не торопясь, оглянувшись напоследок, ушел.

Пострадавший вызвал охотников, которые оказали ему перв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и отправили в больницу. Сейчас с жителем Победино все хорошо, его жизни ничего не угрожает.

Выехавшие на место охотники убедились, что медведь из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ушел.

Этого зверя уже несколько раз видели в Победино. По нему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хищник представляет опасность для людей и будет отстрелян.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от лап медведей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погибли два человека — охотник в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е и рыбак в Анивском. Всего с начала сезона в области отстреляно 83 медведя, что больше показателей за весь прошлый год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 в 2016-м отстрелили 30 медведей,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ли угрозу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а.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사할린한국교육원 행정 직원 채용 공고

##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가. 채용인원 : 1명(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음)

나. 담당업무 : 일반 행정, 한국어 통·번역, 한국어 교육 지원, 자료 관리 등

## 2. 응모자격

가. 2017년 12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는 자

나.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다. 한국어 통·번역 가능자

라. 컴퓨터 활용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마. 공무 수행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

## 3.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17.12.1.부터 근무, 수습기간 3개월 후

근무 성과에 따라 재계약 (1년 단위)

나. 근무시간 : 09:00 ~ 18:00

## 4. 제출서류

가. (필수) 한국어/러시아어 이력서 1부 (별도 양식 없음)

나. (필수) 한국어/러시아어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양식 없음) \*사진 포함

다. (필수) 경력 증명서(졸업증명서 포함) 1부

라. (선택) 어학능력 및 컴퓨터 사용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마. 면접 통과자는 건강진단서, 범죄사실증명서를 제출

(내용에 문제가 있을 시 채용이 되지 않음)

5. 서류제출 시한 : 2017. 11. 24.(금) 18:00까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기간 연장

## 6. 서류 제출처(사할린한국교육원)

가. 제출 방법 : e-mail 혹은 직접 방문 접수

나. e-mail 주소 : joochwank@korea.kr

다. 문의처 : 50-56-96

7.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2차 면접 실시

(면접대상자는 서류 전형 통과자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함)

\*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